

AUKUS: More than meets the eye

A series of small, overlapping initiatives are combining to bolster the security architecture of the Indo-Pacific.

JADA FRASER

17 May 2022

The clear intention of AUKUS is to [tip the military balance](#) in the Indo-Pacific in favour of the United States. The various initiatives in the pact betwee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e headlined by cooperation to develop a fleet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for Australia. The overarching aim is to expand defenc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partners to augment military capabilities and enhance US power projection in the region.

More than that, AUKUS builds on the growing trend to favour “minilateral” groupings over existing multilateral forums to meet the region’s challenges. It adds another complementary layer to the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The Quad, for example, may win new appeal in comparison to AUKUS, which is viewed as more starkly “[anti-China](#)”. Recent [polling](#) in Southeast Asia suggests as much.

Precipitated by a rapidly and drastical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minilateral groupings have proven [adept and flexible](#) in responding to challenges and organising collective action. Smaller memberships facilitate [stronger consensus-building](#).

Valid criticisms of these minilateral initiatives point to their [narrow agenda and exclusionary orientations](#). But in a region characterised b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tical, strategic, and cultural histories, pursu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rough minilateral engagement allows countries to cooperate where interests align, without the fear of being trapped into a formal and binding structure.

The Quad shows how conflicting views on issues outside the distinct remit of a minilateral grouping do not fundamentally jeopardise cooperation – the obvious example being India’s [reticence to criticise](#) Russia over the invasion of Ukraine.

Taken collectively,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now covers a broad sweep of the Indo-Pacific. **Overlapping memberships create important security linkages.** In addition to AUKUS and the Quad, India's invitation for Australia to participate in the Malabar defence exercises last year was a signal of developing military ties. Defence cooperation has also been enhanced by country-to-country arrangements, such as the recent signing of the [Japan-Australia Reciprocal Access Agreement](#), as well as the earlier [Japan-India 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These arrangements carry wider implications to improve joint operational planning and for enhanced interoperability, not only for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but in wider partnerships. Such improvement was showcased by the recent [in-flight refuelling](#) of a Japanese Special Defence Force F-2 by an Australian KC-30A tanker, the first time such an exercise has been conducted.

China has unsurprisingly criticised AUKUS nor is it the only country in the region to raise questions. AUKUS is arguably the most "China-focused" of all the regional security-related arrangements and certainly its contribution to external military balancing [far exceeds](#) that of the Quad. Yet when understood as part of a network of minilaterals, rather than introducing discord and dysfunction, AUKUS adds a reinforcing layer to the Indo-Pacific security architecture.

This allows room to move for those countries worried about security threats from China but less likely to align themselves with groups directly focused on countering China's military. For example, compared to how cooperation with AUKUS may be negatively perceived, Indian actions through the Quad, as well as South Korea's potential partnership or membership in a Quad-Plus arrangement, can be further distinguished from "China-encircling" activities. This can also allow converse manoeuvrability – countries that signal an intent to pursue future cooperation with AUKUS can create leverage vis-à-vis China.

Understanding the increased flexibility for countries outside of the AUKUS pac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member states.

Understanding the increased flexibility for countries outside of the AUKUS pac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member states, who are in an uncomfortable position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Rather than undermining ASEAN centrality or further boxing Southeast Asia into binary choices of embracing the United States at risk of a relationship with China, AUKUS widens the political space in the region for greater decision-making autonomy. When contrasted with the more explicit mission of AUKUS to balance China, cooperation with the Quad, with its distinct focus on public goods provision, might find broader approval in Southeast Asia. This flexibility could be especially relevant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Taken together, the developments with minilateral regional security arrangements are complementary. It's a case of contributing to a whole greater than the sum of the parts.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aukus-more-meets-eye> Lowy Institute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 노동당 집권 ...기후·대외정책 기조 변화 주목

박은하 기자

2022.05.22

호주에서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59)가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 노동당이 21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인 집권 자유·국민연합을 꺾고 다수당이 됐다. 서방의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섰던 호주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의원 151 명과 상원의원 40 명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개표가 70.7% 이뤄진 현재 노동당은 하원 72 석을 확보했다. 자유·국민연합은 52 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녹색당과 무소속 후보 등이 15 석을 차지했다. 12 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당의 승리는 확정됐으며 남은 관심사는 하원의원 76 석 이상을 얻어 단독 과반을 확보하느냐다. 노동당은 2013 년 9 월 총선에서 자유·국민연합에 패한 뒤 약 9 년 만에 정권을 되찾게 됐다.

'청록색'을 상징으로 삼고 급진적 기후정책을 제안한 무소속 후보들과 녹색당 등 '제 3 정치세력'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녹색당은 이번 선거로 하원 의석이 1 석에서 3 석으로 늘어났다. 상원에서도 역대 최대 의석인 12 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성평등과 기후공약 등을 내세운 무소속 후보들은 현역 여당의원들을 꺾고 9 석을 확보했다. 노동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들과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기후와 불평등 조치에 대응하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멜버른에서 현직 재무장관인 조시 프라이덴베르그 의원을 꺾은 모니크 라이언 무소속 후보는 "청록색 혁명이 일어났다. 무소속이야말로 변화의 열망을 상징한다"며 "노동당이 더 강한 기후정책을 펼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기후변화가 녹색당과 청록색 무소속의 약진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청록색 무소속 후보들의 대거 당선은 도시지역에서 양당제 구도를 깨뜨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호주 ABC 방송은 "노동당은 부동산층의 정권심판론 수혜를 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당제에서 한 발짝 떨어진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 TV 연설에서 패배를 시인하고 노동당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물러난 존 하워드 총리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마친 총리가 됐다.

알바니스 대표는 23일 총리 취임 선서를 하고 다음날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승리 수락 연설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 투자를 늘리고, 기후변화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호주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싶다"며 "우리의 공동 목적을 추구하고 두려움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낙관주의를 촉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 문제와 코로나 19 상황이 겹치면서 초래된 경제 상황 악화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론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최근 몇년 간 대규모 자연재해에 시달렸다. 2019년 말~2020년 초 호주 전역에서 발생한 '블랙 서머(검은 여름)' 산불로 인해 남한 면적보다 2배 넓은 2400만 ha가 불에 탔고, 33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봄에는 동부 해안가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마을이 물에 잠기고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거듭되는 재난으로 주택보험료가 2004년 대비 4배 가까이 치솟는 등 가계 부담도 증가했다. 홍수 피해가 덜한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호주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노동당은 이런 상황에 맞춰 국민들에 대한 더 많은 재정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공약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노동당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자유·국민연합이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43%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록색 무소속과 녹색당은 노동당의 공약도 미진하다고 비판하며 각각 50~60%와 75% 감축을 주장했다.

반면 모리슨 총리는 블랙 서머 기간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갔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3월 대홍수 때에도 비상사태를 늦게 선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불과 기후변화 간의 관련성을 한동안 인정하지 않고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도 불참하는 등 기후대응에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오커스 결성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불필요하게 갈등을 부추기는 외교정책 스타일도 문제가 됐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전 외무장관은 이날 퇴임하면서 "모리슨 총리가 선거에서 져서 아주 편안하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정권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 여부는 관심사로 떠올랐다. 알바니즈 대표는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공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모리슨 정부의 외교 기조를 두고 "초강대국(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호주 언론들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역시 "중국의 남태평양 확장을 견제하려는 모리슨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중국 메시지가 부드러워질 수는 있지만 정책 기조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쿼드나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가 위기에 처하는 일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알바니즈 대표는 당선 후 BBC 인터뷰에서 오커스를 강력히 지지하며 기후 행동에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205221702001> 경향신문

바이든, 호주 총리 당선 축하..."미-호주 동맹 변함없어"

전명훈 기자

2022.05.22

호주의 주요 우방국 지도자들이 새 호주 총리로 선출된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의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한국·일본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알바니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호주 동맹을 위해 미국이 변함없이 헌신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호주의 새 정부와 더 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알바니즈 대표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총리 취임 즉시 일본으로 날아오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호주와 이웃한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역시 이날 알바니즈 내정자에게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아던 총리는 "가까운 태평양 우방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개발하자"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오테아로아(마오리어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함께일 때 최고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와 가까운 태평양 섬나라들의 축하 인사도 전해졌다.

특히 이번 호주 총선에서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주목받았던 솔로몬제도의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는 "솔로몬제도는 호주의 변함없는 친구이자, 신뢰할 만한 개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가바레 총리는 오랜 기간 이어진 호주의 금융·의료 지원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더 진행돼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솔로몬제도는 최근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을 근거로 중국이 현지에 자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겠다고며 '서방 국가의 뒷마당'으로 불리던 솔로몬제도에 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스콧 모리스 총리가 소속된 보수 성향의 집권 자유당 측은 이 협정 탓에 호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중국과 호주의 밀착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활용했었다.

한편 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총리도 트위터에서 알바니즈 총리 내정자에게 축하를 전하고 "태평양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522057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연합뉴스